

Dave Mathewson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 15, 요한계시록 10-11장, 나팔과 막간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이것은 15회기,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나팔과 막간입니다.

9장에 언급된 여섯 번째 재앙인 마지막 재앙인 나팔 재앙에서는 7장 초반에 바람을 붙잡는 네 천사일지도 모르는 네 천사가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파괴적인 심판을 풀어 땅에 대혼란을 일으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을 탄 수많은 기수들의 형태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네 천사는 여기에서 말을 탄 기수의 지도자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을 풀어줄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탄 기병의 수 또는 이 기병대의 수는 적어도 제가 읽고 있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의 영어 번역에는 2억 명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2 곱하기 10,000 곱하기 10,000인데, 이는 2억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헬라어 본문에서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상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숫자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에 상응하는 것은 누군가가 적어도 수백만 개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나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뜻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2억 명의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국가나 국가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묻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의 요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문자 그대로 2억 명의 기병대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는 우리의 엄청난 숫자와 비슷한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2억의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국가나 국가를 찾으려고 할 때 요점을 놓치게 됩니다.

존은 2억 달러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숫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나 기병대에 대한 묘사는 실제로 이전 나팔 재앙이 발생한 장소와 매우 밀접하게 겹칩니다.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주목하세요. 그들은 동물과 파충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기와 유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물리적인 지상의 군대가 아니라 다시 한 번 군대의 상징을 사용하여 문자 그대로 지상의 군대가 아닌 악마의 공격, 악마의 초자연적 존재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사용하여 이해되어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와는 달리 단순히 해를 끼치는 것 이상으로, 이것이 별도의 그룹을 갖는 요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상입니다.

이제 그들은 실제로 인류의 적어도 3분의 1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며, 3분의 1은 제한의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최종 심판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 허용되고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다섯 번째 나팔 이후에 더욱 강해집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육체적, 문자 그대로의 죽음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이 영적인 죽음인가? 둘의 조합인가요? 나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성됩니까? 확실히 영적인 죽음이 합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 즉 불못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겪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그들의 능력이 완전한 영적 죽음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상징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확실히 가능합니다. 불확실한.

이 존재들은 결국 인류를 속이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사탄이 12장에서 행하는 바로 그 일, 13장에서 짐승이 행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여러분은 이러한 속임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미혹하여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며 영적인 죽음을 동반하며, 어쩌면 육체적인 죽음도 동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의 신학적 의미와 의의를 탐구하는 데 더 관심이 있으며, 적어도 이 글을 읽는 21세기에 우리가 목격한다면 이것이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20절과 21절은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재앙은 주로 심판을 위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이 재앙들이 우상숭배자(20절), 인간의 우상숭배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아마도 육체적 죽음은 그 결과입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 뒤에,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 제도 뒤에는 그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이 악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몇몇 독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로마와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들이 타협하고 우상 숭배 행위에 가담하려는 유혹을 보게 됩니다. 로마는 중립적이지도, 무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 온 땅을 멸망시키고 해를 끼치려는 사탄과 그의 악귀들의 교활한 시도가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이것은 이집트 시대에 있었던 심판의 재앙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악하고 악한 인류에게 닥치는 재앙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의도 중 하나가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약간의 암시도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 재앙들은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오히려 애굽 시대와 마찬가지로 심판에 있어서 인류를 더욱 완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바로의 강박함이라는 주제를 반복한 것입니다. 재앙에 대응하여 파라오는 계속해서 마음을 강박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염병이 인류에게 미치는 동일한 영향을 발견합니다.

그 기능 중 하나가 회개를 가져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심판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 인류에게 강박함을 가져와 회개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것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8장과 9장에서 이러한 재앙이 예상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대의 전조이자 아직 오지 않은 최종 심판에 대한 거의 경고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3분의 1에 불과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제한된 심판이며 최종 심판, 즉 인류가 회개해야 할 제한된 심판을 기대하지만 그들은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19장과 20장에 다가올 미래의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의 표시 또는 예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경건한 나라들과 악하고 악한 나라들을 생각할 때입니다. 19장과 20장에서 심판을 받고 불뿔에 던져지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생각엔 우리가 그걸 봐야 할 것 같아. 가끔 억울하게 던져지고, 본의 아니게 빼앗겨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최종 판단을 보고 상상할 때, 발로 차고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며 상황이 그렇게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9장과 같은 본문이 최종 심판 신학에 대한 언어, 이미지, 이해를 올바른 시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9장에 보면 인류는 심판을 받아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최후의 심판에서도 인류는 여전히 회개를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는 것보다 그것이 아무리 끔찍하고 끔찍할지라도 여전히 심판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9장은 최종 심판이 심판에 직면하고 나가기를 원하지도 않고 나가고 싶어하지도 않는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선택하고 영원히 심판을 선택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주권과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19장과 20장에서 영원한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곱째 나팔이 9장에 나오는 순서대로 11장과 15절부터 19절까지 연기된다고 말했는데, 그때 역시 분명히 셋째 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째 나팔이 오기 전, 즉 11장 후반부에 셋째 화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는 10장과 11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 또 다른 짧은 막간을 발견합니다. 7장에 나오는 또 다른 막간은 우리가 이것을 관련 없는 자료의 삽입이나 여담 또는 시퀀스의 관련 없는 환상적인 부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이 막간은 8장과 9장에서 일어난 일의 의미와 기능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10장과 11장은 8장과 9장의 나팔 심판의 기초를 더 탐구합니다. 즉, 10장과 11장은 8장과 9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이 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상황은 어떠한가? 8장과 9장의 상황. 이는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이 8장과 9장과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기간을 서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오고 그들과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8장과 9장의 사건을 더욱 조명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우리는 흥미롭게도 요한이 예언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미 1장에서 요한이 교회들에 관해 예언한 것을 봅니다. 2장과 3장에서 요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1장에서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에 예언하라는 사명을 받았고, 그들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은 10장에서 11장에서 교회의 신실한 증인에 대해 예언하고, 10장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열국과 각 족속과 방언과 방언에서 나온 백성의 운명에 대하여 예언하라는 재위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부분인 10장은 11장에서 신실한 증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8장과

9장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11장의 충실한 두 증인을 핍박하는 악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비추어 정확하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충실한 두 증인이 증거를 완수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온 세상이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는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즉, 저자는 8장과 9장을 다시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제국을 포함한 악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들의 신실한 증인들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데 있다. 그것을 소개합니다.

10장은 서론으로서 요한에게 그에 관해 예언하도록 위임하는 역할을 하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과 11장에서 그분의 신실한 증인인 교회의 기능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이제 10장에서 처음 두 구절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10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10장의 여러 가지 흥미롭고 중요한 특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과 2절입니다. 먼저 읽어보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살펴보세요.

요한은 또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달린 구름 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았습니다.

그의 다리는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는 그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디디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가 외치자 일곱 천둥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곱 우리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일곱 우리의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영원히 살아 계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그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이시니라 그것과 바다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며 시간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다시 나에게 말하였다.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래서 나는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그것을 받아 먹으라 하셨다. 배에서는 신맛이 나지만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내 배에서는 꿀처럼 달았으나 먹고 나니 배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 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말을 내게 들으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일곱 번이나 나타나는 네 가지 묘사가 있습니다. 이제 10장에서는 다시 이 재임무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제 요한은 교회의 형편과 심판과의 관계에 대하여 새롭게 예언하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족속과 방언의 백성들의 역할에 대하여 예언하라는 재위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장은 요한이 다른 천사를 본 환상으로 이 임무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묵시록에는 천사 같은 존재들이 가득합니다. 이 천사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전히 8장과 9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계시록은 하늘에서 땅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요한은 지상의 관점에서 사물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힘센 천사로 봅니다.

사실, 그분은 땅과 바다 위에서 계시고,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서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그분이 만물에 대한 주권, 모든 창조물에 대한 주권을 암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를 묘사하는 방식은 다소 독특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묘사된 천사와 같은 방식이나 정도로 묘사된 천사는 요한계시록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것의 정체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이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예를 들어, 그가 옷을 입었다는 사실, 그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 7장, 요한이 선택한 요한계시록 1장 또는 요한계시록 1장의 인자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무지개와 하나님과 관련된 보좌실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의 다리는 불기둥인데,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인 1장에서 그의 발이 불기둥이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그가 지금 손에 두루마리를 펴 들고 있다는 사실도요.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요한이 본 이 천사적 존재는 아마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천사적 존재와는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마도 이 강력한 천사를 구름 옷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기둥 같은 발을 갖고 있고, 이제 두루마리를 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언급된 여러 책이나 두루마리를 보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문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이 책을 언급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두루마리를 소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는 그의 왕국을 시작하고 이 땅에 그의 왕국을 세우며 구원과 심판을 가져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두루마리를 소개합니다. 작은 두루마리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그리스어 단어가 실제로 소형이라고 불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번역을 제안하는 결말, 즉 작거나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단순히 두루마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10장 후반부에서는 요한이 5장에서 두루마리를 언급하기 위해 사용한 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두루마리라고만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요한이 보는 이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두루마리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두 가지 특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중 하나는 만약 이 사람이 천사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 천사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해야 한다면, 10장에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두루마리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두루마리 5장에 봉인된 단어로 사용된 단어와 유사한 문법 형태의 단어를 사용하여 펼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펼쳐진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합산하면, 만약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고 지금 그것을 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도 그 두루마리가 5장의 동일한 두루마리와 동일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봉되었다가 6장에서 풀렸고 일곱째 인은 8장에서 이제 드디어 10장에서는 두루마리를 가지신 어린 양이요,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요, 이제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쥐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책은 펼쳐진 채 서 있고, 5장처럼 더 이상 인봉되지 않고 펼쳐진 채로 서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시사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5장의 두루마리 뒤에 있으며, 10장의 두루마리는 에스겔서 2장과 동일한 구약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은 두루마리에 대한 일종의 모델 또는 상호텍스트를 제공합니다. 5장과 여기 10장 모두.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10장에서 이 두루마리를 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이신 힘센 천사가 지금 펴 있는 두루마리는 죽임을 당한 어린양으로서 자기가 받기에 합당했고, 인봉된 두루마리는 이제 5장에서 받기에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봉해지지 않았으나 지금은 열려 있으며 이제 그분께서는 이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직접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이 입증할 것처럼 인과 나팔이 아마도 앞으로 더 많은 심판, 특히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비 심판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심판. 이제 이렇게 말했으니, 우리는 이 장에서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요? Richard Bauckham, 우리는 그를 여러 번 언급했는데 그는 10장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11장을 합치면 10장은 11장에 대한 서문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6장부터 9장에 비추어 볼 때 6장부터 9장은 기본적으로 재앙, 즉 세상에 대한 심판 재앙으로 특징지어지고 9장은 다음과 같은 진술로 끝납니다. 전염병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aucom은 10을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세상을 되찾기 위한 일종의 새로운 전략으로 이해합니다.

즉, 지금까지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랬고, Baucom은 하나님이 효과가 없는 것을 시도하셨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른 것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그는 판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를 가져오는 것은 인과 나팔 재앙 형태의 심판이 아닙니다. 9절이 끝나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열방을 회개로 이끌겠습니까? Baucom은 10장과 11장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요한이 예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예언, 새로운 전략이 있습니다. 이제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고난과 신실한 증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실 것이며 세상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통치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말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10장과 11장에서도 그 부분의 주된 강조점은 여전히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의 변화를 보는 것과는 반대로 이제 열방이 하나가 되어 회개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회개는 신실한 두 신실한 증인의 증언 이후 11장 끝에서 이루어지지만, 하지만 거기에 도착하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시에 심판이 여전히 지배적인 주제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10장과 11장은 이제 열방을 회개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대신 세상의 심판이 왜 오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온다.

그것은 그분의 충실한 증거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배척하고 박해하여 결국 죽이는 신실한 증인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제가 10장과 11장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요한은 다시 예언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과 세상에 대한 그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를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11장에서 그분의 두 증인에 대한 신실한 증언을 통해 세상은 배척하고 박해하고 죽임을 당하며, 그것이 그들에 대한 그분의 심판의 기초가 되며, 그 심판은 나중에 11장에서 일어나는 일곱 번째 나팔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10장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은 3절과 4절에서 음성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3절 끝에서 일곱 우리를 발견합니다. 일곱 우리의 음성이 말하더라. 이제 우리는 일곱 천둥의 소리를 접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바로 그곳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는 분명히 이 소리가 요한이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기록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신 봉인하라고 하더군요.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은 봉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본문인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은 내용을 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봉은 숨기고 덮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거나 이것이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시간.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책을 봉하지 말고 이 한 곳에 일곱 우리를 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일곱 천둥이 무엇이었을 것이며 요한이 그것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는데, 숫자 7을 다시 한 번 주목해 보세요. 이는 문자 그대로 일곱 천둥이 아니라 일곱이 완전함, 충만함, 완전함의 상징을 상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제안한 한 가지 가능성은 요한이 이 일곱 천둥의 내용을 누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가 봉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요한이 내용을 누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시하지 않으셨음을 암시하고, 어떤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숨겨져 있으며,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방식이 여전히 어느 정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제안된 또 다른 가능성은 다음 두 개에 해당됩니다. 세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 개, 즉 천둥과 관련된 숫자 7은 이것을 일곱 인의 맥락에 두고, 일곱 나팔.

그러므로 일곱 천둥은 일곱 번의 추가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천둥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그것을 인봉하심으로써, 즉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않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은혜롭게 그의 심판을 단축하신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심판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자비로 인류에 대한 심판을 중단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세 번째 접근 방식은 두 번째 접근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이제 일곱 천둥 재앙과 같은 또 다른 일련의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는 또 다른 일련의 재앙이지만, 그분은 나팔과 대접을 통해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요한은 인류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봉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9장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팔이나 대접 같은 예비 심판을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최종 심판을 앞두고 상황이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을 부으실 것이며 인과 나팔과 같은 예비 심판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심판, 재앙 심판을 상징할 수 있는 일곱 우레는 봉쇄되거나 정지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단순히 예비 심판을 통해 인류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종 심판을 포함하여 역사에 대한 자신의 목적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첫 번째 장에는 몇 가지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일차적인 의도는 아니더라도 이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 중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일부 정보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계획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는 지나친 자신감이나 오만함으로 계시록이 미래에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추가 경고입니다. 그러나 다섯 시부터 일곱 시까지 우리는 이제 천사의 말을 발견합니다. 그 천사는 죽임을 당한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1장에서 높여진 인자로 보여졌습니다. 그는 또한 유다 지파의 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살된 어린 양이였습니다. 이제 그는 강력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자는 묵시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제 그분은 한 발은 땅, 한 발은 바다를 밟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5절과 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내가 본 바 바다 위에 섰던 천사가 먼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맹세하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지체는 없을 것입니다. 즉 문자 그대로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요한은 자신의 환상을 구약의 예언 본문의 성취와 연결시킵니다.

그는 예언적 전통의 성취인 절정에 서 있다. 이제 저는 이 언어를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5에서 7까지의 언어와 시간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깨달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천사와 함께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이며, 이 연설은 우리를 다시 구약성서인 다니엘서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다니엘 12장 7절이요. 사실 저는 운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 12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은 요한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예언서 중 하나입니다. 그의 종들인 다니엘을 포함한 선지자들의 약속의 최종 성취와 완성이 이제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이 끝나고 그 때에 네 백성을 보호하는 큰 왕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어나지 않는 환난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에는 네 백성 곧 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은 수치와 영원한 멸시를 받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있으리라 그러나 너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두루마리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늘리기 위해 여기저기로 갈 것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내 앞에 다른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하나는 강 건너편에, 하나는 강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언제까지 이루어지겠습니까? 7절에 그 사람 곧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오른손을 들었으니 이는 10장에 암시된 바와 같으니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오른손과 왼손을 들었더라 천국을 향한 손.

또 나는 그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천사가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이리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일 것입니다. John은 더 이상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다니엘과 다른 예언자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일이 마침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역사적 순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개시하실 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침내 완성이 올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약속한 것이 이제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며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존이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며, 우리는 단지 이상한 일시적인 존재에 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역사의 진보가 마침내 그 절정과 완성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끝이 올 것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역사 속에서 더 이상 일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은 올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 역시 이 모든 것을 더 넓은 맥락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부분적으로 6장 7절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오 주님, 얼마나 오래 기다리라고 하는지 궁금해하며, 그들이 죽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가 달성됩니다. 말 그대로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0장 6절부터 7절까지에서 우리는 때가 더 이상 없음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말과 같이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는 이 세상 나라의 온전한 심판과 온전한 패망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과 온전한 완성과 도래가 있으리라 .

이것은 다시 11장, 15장부터 20장까지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요한계시록 6장 10절은 “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핍박받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 단기간,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마침내 천사가 와서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 완성이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천둥도 없고, 더 이상 심판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정, 성자의 부르짖음에 대한 최종 응답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연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저자는 이것이 교회의 고난받는 증언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저자가 약간의 백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 어떻게 도착할까요? 이 최후의 심판과 성도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은 교회의 신실한 증거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신실한 증거로 인해 죽음과 박해와 죽음까지 겪는 왕과 제사장들을 통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왕국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천사는 그것을 고대하며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곧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의 신실한 증언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11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과 그의 성도들의 최종적인 신원을 가져올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약속과 메시지는 이제 그 마지막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역사적 과정은 종말을 맞이하고 정점에 이를 것입니다.

그 결과 8절부터 11절까지, 아니 실제로는 8절부터 시작하여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다시 한 번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강력한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가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체인을 주목하세요. 이것이 5장의 동일한 두루마리라면 사슬을 주목하세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십니다. 이제 펴셨으니 이제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십니다. 요한이 가장 먼저

하라는 명령은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가라는 명령을 받은 다음, 그것을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흥미로운 특징이지만 우리가 묵시적인 유형의 텍스트에서 확실히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먹는 이 비유와 요한이 계속해서 그것을 먹으면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달다고 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이 그것을 먹기 시작했을 때, 분명히 묵시적인 이미지였지만, 먹는 동안 실제로는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에 들어가서 소화되기 시작하면, 쓰게 되고 껌 신맛이 납니다. 이 언어는 다시 한번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말한 책인 22장은 5장에도 나오는 두루마리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두루마리에 대한 설명과 2장에서 요한과 두루마리의 관계에 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십시오. 에스겔서 2장 3절부터 시작하여 인자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나를 배역하는 패역한 민족에게 보내노라 하셨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나를 거역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보내는 사람들은 완고하고 완고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므로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은 알리라

그리고 너 사람의 아들아, 그들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록 찰레와 가시덤불이 네 주위에 있고 네가 전갈 가운데 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마.

당신은 그들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8절: 너 인자야,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 반역하는 집처럼 반항하지 마십시오.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나에게 손을 뺀 손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 2장에서 그린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내 앞에 펼쳐 놓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양면에는 애도의 말과 애도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네 앞에 있는 것을 먹고 그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내가 입을 열자 그분께서 두루마리를 나에게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두루마리를 먹어서 그것으로 네 배를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에스겔서 2장에서 손에서 펼쳐진 두루마리를 꺼냈던 것처럼, 이 강력한 천사가 열린 두루마리를 쥐고 있는 자에게서 두루마리를 가져가는 시나리오에서 요한이 끌어낸 언어입니다. 그런 다음 요한은 그것을 먹습니다. 에스겔 2장과 3장을 모델로 한 묵시적인 방식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먹었더니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달콤함과 쓴맛이 섞인 이 언어는 아마도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의 성격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즉, 그가 쓴맛으로 시작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뱃속이 시큼해요.

당신은 그가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입에서는 달콤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됩니다. 그는 신맛으로 시작합니다. 첫째, 신맛, 단맛, 신맛은 아마도 구원의 메시지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또한 메시지, 신맛, 심판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맛을 먼저 두는 것은 아마도 이제 요한이 말하기 시작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너무 달고 신맛, 달콤함과 쓴맛은 아마도 실제로 두루마리를 먹는 것의 효과를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배가 아프게 할 것이며 요한이 곧 선포하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이지만 주로 심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10장, 10장의 이 재시동 장면은 11장에 대한 설정과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11장은 아마도 두루마리 내용의 주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인과 나팔이 일종의 예비 심판이라면, 이제 10장에서 요한은 주로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하라는 다시 위임을 받습니다. 10장에서 요한이 받고 요한이 먹은 두루마리의 내용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최소한 11장을 포함합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심판 장면인 19장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내용이 22장 끝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1장은 요한의 메시지나 지금 요한이 먹는 두루마리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단지 그것으로 제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마도 책의 나머지 부분, 즉 21장과 22장까지 요한이 먹은 두루마리의 내용이나 메시지를 포함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자와 구원을 동시에 담은 메시지입니다.

이제 10장에서 요한의 사명에 이어 11장에서 이것이 요한이 전할 메시지이거나 적어도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답하고 제기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설립하려는 목적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봉과 재앙에서 찾을 수 있는 그분의 목적, 예를 들어 그분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인류를 심판하려는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자신의 목적을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 11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두 증인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의 증인으로 임명하셨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목적을 완성하실 때 바로 그의 증인들을 통해서입니다. 거절당하고 박해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에 심판을 내리실 것이며, 그 심판은 11장의 일곱째 나팔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따라서 다시 11장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심판의 맥락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심판을 내리시는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세우시고, 악을 심판하시며, 성도들의 복수를 요구하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거절당하고 적대적인 대우를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증언을 통해서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우리가 다루어야 할 두 가지 이미지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John이 이 작업을 하는 것을 꽤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이미지를 소개하고 때로는 같은 것을 언급하고 때로는 다른 것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여기 11장에서는 두 가지 다른 이미지가 소개됩니다. 그 중 하나는 측정되는 사원입니다.

11장은 요한이 갈대를 받고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을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3절에서 시작하는 두 증인 중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나가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다시 대답해야 할 질문 중 하나는 여러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누가 있거나 이 두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가? 그들은 무엇을 가리킬 수 있습니까?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측량을 받는 이 성전은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이 이미지들은 서로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장과 11장의 더 넓은 섹션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것들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해당 섹션을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14절까지만 읽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하여 나팔이 소개됩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읽어보겠지만, 13절에서 멈추고 그 정도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르시되 가서 하나님의 전과 제단을 측량하여 거기에서 경배하는 자들의 수를 계수하되 바깥뜰은 제외하라 하느니라.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측량하지 말라. 그들이 42개월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요, 내가 내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1260일 동안 굶은 베를 입고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입니다. 그들을 해치려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죽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늘을 닫아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권세가 있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땅과 모든 재앙을 수시로 치는 권세가 있느니라.

이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치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이기고 죽일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사흘 반 동안 각 사람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의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살펴보고 장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두 예언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니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지켜보더라.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졌습니다. 지진으로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이 섹션에서는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한 설명을 소개합니다.

요한은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그 중 일부만을 측량하고 나머지는 이방인에게 내어준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전의 일부가 이방인의 손에 던져져 짓밟히는 이 42개월의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1260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 그들이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원수들을 삼키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그들의 사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짐승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그들을 죽이고 거리에 눕혀서 온 세상으로 삼일 반 동안 보이다가 마침내 이 마지막 날에 살아나리라 함을 우리가 어찌 이해하리요 보는 세상 전체가? 그러므로 11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두 이미지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요한이 선포할 메시지에 대해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우리가 씨름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 우리는 이 두 이미지의 정체에 대한 질문과 요한계시록 11장을 이해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다른 문제들을 다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이것은 15회기,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나팔과 막간입니다.